

〉 주간회의

〉 연구과제

〉 동정

〉 연구원 소식

〉 게시판

〉 자유발언대

주간회의

(9월 18일 11:00 원장실)

- * 11월말까지 연구보고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등 철저 (이에 따른 예산, 인력지원 약속)
- * 민선4기 수시 및 정책과제 점검(예산편성 연구인력 배정 등)
- * 연구원 운영관련
 - 중간연심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강소성사회과학원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준비
 - 연구원 CI 준비
 -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협약식 준비
 - 10월중 연구원 전직원 단합대회 준비

연구과제

* 동부권 균형개발 관련 합동회의

동부권 균형개발과 관련 도·시·군 공무원(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과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과의 합동회의가 9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전북지역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 방안” 중간자문회의

9월 12일 기본연구과제 “전북지역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중간자문회의가 있었다.

자문위원은 엄영숙 교수(전북대), 임경진(전주여성인력개발원 관장,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천선미(북지여성국 여성가족과)등이 참여하였다.

* “전라북도 GIS 추진 전략” 연구 중간 연심회

‘전라북도 GIS추진 전략 연구’의 중간연심회가 9월 15일(금) 본원 회의실에서 자문위원(신정민 교수(비전대), 이근상 박사(수자원연구원)), 전라북도청 토지정보과(황인석 과장, 최성재 계장)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 전라북도정보화 종합계획 2차 자문회의

전라북도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연구팀은 지난 13일 전라북도 영상회의실에서 통합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전북발전

전북 미래를 밝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10.20)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연구원에서 위촉한 3인과 생산성본부가 위촉한 3인의 자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정보영산산업과 담당자들이 모여 현재 연구 중인 내용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동 정

*원 장

-9월 12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혁신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내재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계진.

*김진석 연구위원

-9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혁신우수사례 평가, 지역혁신성공사례 대학분야 심사회의'에 평가위원으로 참석.

-9월 12일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된 '지역국립과학관 장기 확장 계획 및 전북지역의 대응' 세미나 참석.

-9월 1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최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세미나'에 관계전문가로 참석하여 논의.

-9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최된 '지역혁신성공사례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우수사례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례' 발표.

*나상균 연구위원

-9월 11일(16:00)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팀구성과 관련하여 팀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자 회의(전라북도 물류건설국)에 참석. 이날 회의에서 팀별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

*김보국, 이동기, 최영희 연구위원

-9월 11일(16:00)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환황해권 군산해양관광지 조성 TF팀 위원 위촉(김보국, 최영희박사 등)과 함께 군산해양관광지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

*이창현 연구위원

-9월 11일 전북도청 새만금환경국 주관으로 개최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간담회'에 참석하여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필요성, 규모,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자문.

-9월 13일 전라북도 주요현안사업 가운데 건설물류국 관련사업에 대해 건설물류국장,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업무 협의.

*최영희 연구위원

-9월 1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지방환경청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친환경적인 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논의.

*김태준 박사

-9월 14~15일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전국 GIS관련 대학 및 공무원 경진대회, 워크샵, 전시회 및 신기술 발표회 등에 참석.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 도서검색시스템도입

본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에 대한 검색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도서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라북도의회자료실과 연동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차후 행정자료실과도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시판

*2008년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전북발전연구원은 수행중인 대형 국책사업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한다.

<간담회 개요>

- 기 간 : 2006. 9. 21~9. 29 (7일간)
- 장 소 : 해당 시·군의 회의실 등 적의장소 선정
- 참석대상(25명 내외)
 - 도 (1명) : 기획관리실장 또는 정책기획관
 - 시·군(20명): 부단체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10명), 전문가(5), 관계 공무원(4)
 - 전발연(4명) : 원장, 해당 시·군 담당 연구위원 등
- 행사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일정별 개최시군>

일 정 별	개 최 시 · 군		
9. 21(목)	10:00 전주시		
9. 22(금)	10:00 익산시	13:30 정읍시	
9. 25(월)	10:00 임실군		
9. 26(화)	10:00 완주군		
9. 27(수)	10:00 무주군	13:30 장수군	16:00 진안군
9. 28(목)	10:00 김제시	14:00 순창군	16:00 남원시
9. 29(금)	10:00 군산시	14:00 부안군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사회개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와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이 있는 분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자세히 보기](#)

자유발언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도서관

-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

*출산 가능한 사회분위기 창출을 위한 마인드 교육

- 권정소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도서관

여성정책연구소장 | 전 정 희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서울 사직동에는 '인포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 모 기업이 수십 년 전에 개관한, 우리나라 어린이 도서관의 효시를 이루는 곳이다. 척박한 시대에, 돈벌이가 되지 않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발상이었고 그것이 그 기업가의 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점이다.



최근 출산율 저하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합계 출산율은 1.0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는 이제 국가적인 난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절박한 시점이다.

지금의 어린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사당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둔 갖가지 학업과 과외활동을 소화해내야 한다. 근간 매스컴에서 충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아학원'에 대해 전해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교육의 열풍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사교육 시장의 이상 비대화와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로 인한 가계재정의 부담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거보다 교육의 수준을 상승시켰다거나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 흔적은 별로 없다. 공부에 찌들고 지친 스트레스 많은 아이들을 양산해 놓았을 뿐이다.

과거 미국에 머물면서 그 곳이 부러웠던 한 가지는 지역 도서관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시험공부 하느라 독서실화 되어 버린 그런 도서관이 아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와서 놀면서 동화책을 보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수준별로 잘 갖추어진 책을 빌려볼 수 있었다.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CD, 비디오 가게에는 없는 오래된 비디오 테잎 같은 것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문화에 대한 갈증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이 자리한 상징적인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유서깊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 곳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짓는 것은 어떨까. 다른 어린이 도서관의 표상이 될 만한 시설을 갖추어서 아주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비한다면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문명의 시대에 사색의 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도서관에 엄마의 손을 잡고 와서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고, 새로운 놀이문화를 접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더불어 도서관에서 함께 한 그 시간들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의 전범으로 널리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회자되고 있는 전해성 박사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교육한 중요한 방법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잡고 도서관 드나들기를 생활화 한 것이다. 도서관을 통한 투자는 아주 장기적이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아이들 교육이 치열하고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는 시대에, 특별한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외면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영아기 때부터 수백만원을 투자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평생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출산 가능한 사회분위기 창출을 위한 마인드 교육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권 정 소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출산 가능한 여성은 모두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형적인 인구구조모델로 국가경쟁력이 위기를 맞으면서 가임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성의 고귀함을 ‘사람을 잉태하는 중요한 임무를 띤 고등동물로서 남성이 이를 따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하등 동물이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 물론 이 말을 못남성들이 접하면 출산의 특권으로 몰아 부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어미의 품에서 자란 남성들의 근원적인 힘은 여성이라는 불변의 원칙은 명확한 진리인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어긴 지금의 사회 문제를 당연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비, 자녀양육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마지플랜2010’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주요골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고 또한,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보장되는 각종 지원책을 미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정책적 지원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앞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이 직장에 꼭 나가야할 경우 맨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사안인 가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느끼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집안일은 전적으로 여자들의 몫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인 여성의 직접적인 배려 장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남자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일은 달콤한 잠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주체는 당연히 엄마의 품인 것처럼 회식자리/야근에서 조차 후다닥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모성애가 당연시 되는 사회 풍토를 진정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또한, 직장에서 임신한 여성의 과중한 업무, 병원진료의 불이익, 모유수유 공간의 부재, 출산휴가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여성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직장여성들이 느끼는 출산에 대한 괴리적인 일들을 개별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분위기를 유도하려면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의 출산을 막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마인드변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시급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성의 출산 저하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이나 환경적 접근을 통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간과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눈에 보이는 인위적 정책에 의지하기 보다는 가임여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책임을 동반하려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주변의 모든 여성들을 보면, 하나같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출산의 당위적 이유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결혼 1년차로 가정과 직장일을 동시에 병립해야 하는 나조차도 출산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출산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아이양육을 친정엄마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